
지방시대 엑스포 해외사례 조사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3. 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I. 국외출장 개요

□ 배경 및 목적

- ‘2023 지방시대엑스포*(‘23.10.30~11.1, 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국의 균형발전 정책 조사 및 관련 행사 벤치마킹 필요
* (주최)지방시대위원회/행안부/산업부/중기부/17개 시도, (주관)대전시/KIAT/TIPA/KPC
- 최근 일본의 지방창생 주요 정책 및 이슈를 조사하고 지방창생 엑스포 참여를 통한 최근 전시트렌드 파악
- 일본 내각부 지방창생 담당 기관과 우수사례지역을 방문하여 관련 정책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고 균형발전 시사점 도출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23. 6. 27(화) ~ 30(금)
- 출 장 국 : 일본 도쿄
- 출 장 자 : 김OO 실장

* 균형위(출장 총괄), 산업부, 행안부, 중기부, 대전시 등 출장인원 총 14인

< 출장자 명단 >

연번	부서명	직위	성명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최OO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장	김OO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관	한OO
4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박OO
5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	최OO
6	행정안전부	주무관	이OO
7	대전광역시	팀장	두OO
8	대전광역시	연구원	남OO
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실장	최OO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책임연구원	김OO
1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실장	김OO
12	한국생산성본부	팀장	최OO
13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김OO
14	이벤트넷	대표	엄OO

□ 주요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방문기관 (주요 면담자)
6/27 (화요일)	서울	도쿄	-	• 출국 (서울→도쿄 항공이동)	-
6/28 (수요일)	도쿄	도쿄	빅사이트 일본 내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방문 (내각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 구상실현회의 사무국) (10:00~11:30) : 지방 디지털 인프라 정비 및 지방 활성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과 인력산업정책 소개 • 지방창생EXPO 참관 (11:30~16:00) : EXPO 전시관 및 최근 전시 트렌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내각부 후세다 히데오 (내각심의관) • RX Japan Ltd (chief(int'l sales), Div 1) 이OO
6/29 (목요일)	도쿄	도쿄	우수사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방문 (치치부시 시청) (10:15~11:10) • 지역창생사례 탐방 (미야노카 상점가 등) (11:10~13:10) • 기관방문 (요코제마치 야쿠바) (13:3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치부시 시장 키다보리 아추시, 관광과 나카지마 • 요코제마치 촌장 토미타 요시나리, 후지무라
6/30 (금요일)	도쿄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재생사례 탐방 • 귀국 (도쿄→서울 항공이동) 	-

II. 주요내용

1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실현회의 방문

□ 방문기관 개요

○ 조직구성

- 내각관방의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실현회의 사무국과 내각부의 지방창생추진 사무국으로 양분되어 조직('21년)

부처	사무국	주요기능
내각관방	디지털전원도시국가 구상실현회의 사무국	지방창생의 기획·입안, 종합 조정
내각부	지방창생추진 사무국	지방창생에 관한 법률·예산·제도 운용

- 의장 : 기시다 후미오 (現 내각총리대신)
- 부의장 : 디지털 전원도시국가구상 담당 대신, 디지털 장관, 내각관방장관
- 구성원: 국무대신, 지방 활성화 및 디지털 관련 전문가 등, 총 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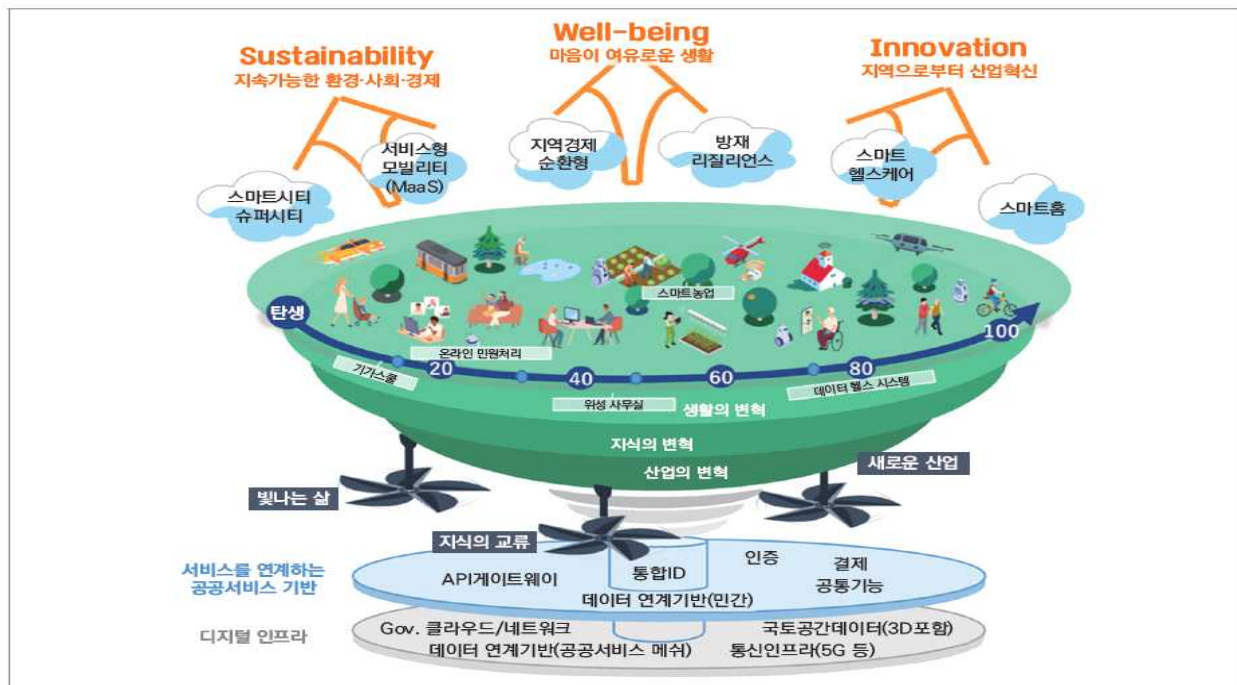
○ 의의 및 목적

- 다양한 사회과제에 직면하는 지방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개성을 보존하면서 사회과제를 해결하고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방 활성화 추진
-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활성화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추구

○ 역할 및 기능

- 지방 디지털 인프라를 정비 및 지방 활성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실현 회의 개최
- 지역의 인구 동향, 산업실태 등을 반영하여 정책목표, 시책을 담은 「지방판 종합전략」 수립 및 지원
- 지역재생계획의 승인·지원(재정, 금융, 세제, 절차 특례 등)

<디지털 전원도시국가의 성공 미래상>



< 사무국 방문 >



○ 구상 배경

-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디지털 전환(DX) 필요성 강조
- 일본 정부는 산업혁명과 공업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전원도시(Garden city) 개념에서 출발한 '디지털 전원도시'를 새로운 정책구상으로 추진
- 디지털은 지방의 사회과제(인구감소, 과소화, 산업공동화 등)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이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임.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급속히 정비하고, 관민 융합을 통한 지방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인간중심의 디지털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경제/생활/행복의 포지티브 사이클을 돌리는 일련의 정책을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으로 하여 주요 국가 전략화.

○ 이전 지방 창생 종합전략과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비교

- '디지털 전원도시'에서는 관광, 교통, 근무방식, 교육, 의료, 방재,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스마트시티·슈퍼시티의 구성 요소가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리면서 인간 중심의 디지털화를 구현하여 추진될 것으로 기대

< 마을·사람·일자리창생종합전략과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비교 >

	마을·사람·일자리창생종합전략의 주요 내용 (현재)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의 주요 내용 (향후)
지방에서 일자리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 진흥 농림수산업 성장산업화 관광진흥 지역주도 탈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업·에코시스템 확립 스마트농업 관광DX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노베이션 창출
인적 교류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이주 추진 관계인구 창출·확대 지방에서의 인재 지원·인턴십 추진 매력있는 지방대학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 없는 이주' 추진 온라인 관계인구 창출 확대 2개 지역 거주 등 추진 위성 캠퍼스
결혼·출산·양육 희망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활약 추진 저출산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자 온라인 상담 모자건강수첩 어플리케이션 아동 안심보호 지원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통 유지·확보 의료기능 확보 SDGs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지역방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론물류·자동운전·MaaS(인프라 DX) GIGA스쿨·원격교육(교육DX) 3D도시모델 정비·활용 원격의료

주: DX: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SDGs: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D도시모델: 차세대 사이버 공간상에 재현한 3차원 지리공간데이터.

출처: <https://project.nikkeibp.co.jp/jpgciof/atcl/19/00003/00012/?SS=imgview&FD=1154182637> (2022년 10월 18일 검색).

□ 구상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책

- **(5대 지역 과제 해결)**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2024년 말까지 1천개의 지방공공단체가 다음의 5대 지역 과제 해결 전략 및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① **지역 일자리 만들기:** 스타트업·에코시스템 확립, 중소·중견기업 DX캐시리스(cashless) 결제, 공유 경제 등:, 스마트 농림수산업, 관광DX, 지방대학을 핵으로 한 이노베이션 창출 등

-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의 확립:** 벤처 투자나 사회적 투자의 확충 · 강화, 대학 · 고전 등과의 제휴 등
- **중소 · 중견기업 DX:** 중소기업 등의 DX 반주형 지원, 현금리스 결제 · 셰어링 이코노미의 추진 등
- **스마트 농림 수산업 · 식품 산업:** 농기 등의 원격조작, 농작업의 경로화, 식품 산업과의 제휴 강화 등
- **관광 DX:** 관광 앱의 활용, 결제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 등
- **지방대학을 핵으로 한 혁신 창출:** 지방대학을 핵으로 한 산학관 제휴, 오픈 혁신의 촉진 등
- **지방과 해외를 포함한 다른 지역과의 연결 강화:** 중소기업 등의 해외 전개가 자율적으로 확대하는 구조의 구축 등

② **인적 교류 만들기:** ‘전직 없는 이주’ 추진(2024년도 말까지 위성 오피스 등을 지방공공단체 1천 개 단체에 설치), 온라인 관계인구 창출·확대, 2개 지역 거주 추진, 위성 캠퍼스 등

- **전직 없는 이주의 추진 등을 통한 지방으로의 인재의 환류:** 지방 창생에 기여 하는 텔레워크(지방 창생 텔레워크)의 추진, 기업판 고향 납세 등을 활용한 위성 오피스 정비 등

- 관계 인구의 창출 · 확대, 복수지역 거주 등의 추진: 온라인 관계 인구의 창출 · 확대, 지방으로의 이주 · 취업에 대한 지원, 복수 지역 거주 추진 등
 - 지방대학 · 고등학교의 기능 강화: 지방대학의 진흥, 지방에 위성 캠퍼서의 설치 추진, 산학 관의 연계에 의한 지역 산업 진흥 · 고용 창출, 고등학교의 기능 강화 등
 - 여성에게 선택되는 지역 만들기: 여성 활약을 향한 의식 개혁이나 일, 여성의 기업 지원 등의 전개
- ③ 결혼·출산·육아 희망 실현: 모자 온라인 상담, 모자 건강수첩 앱, 아동 돌봄 지원 등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육아 지원 등의 추진: 온라인 모자 건강 상담, 모자 건강 수첩 어플의 확대
 - 결혼 · 출산 · 육아 지원: 새로운 생활에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결혼 지원, 라이프 스테이지에 응한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등
 - 일과 육아 · 개호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육아 · 개호 휴업의 취득 촉진 등
- ④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GIGA 스쿨·원격교육(교육DX), 원격의료, 드론 물류, 자율주행, MaaS, 인프라 분야의 DX, 3D 도시 모델 정비·활용, 문화예술DX, 방재DX 등
- 질 높은 교육, 의료 서비스의 제공 : GIGA 스쿨 · 원격 교육의 추진(교육DX), 원격 의료 적극 활용 지원
 - 대중교통 · 물류 인프라 분야의 DX에 의한 지역 활성화 : MaaS · 자동운전 등 대중교통 분야의 디지털화, 드론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 인프라와 관련된 절차의 효율화 · 3차원 데이터의 활용 등
 - 마을 만들기 DX : 3D 도시 모델의 정비 · 활용, 혁신을 창발하는 매력적인 공간 · 거점 만들기

- 지역자원을 살린 개성 넘치는 지역 만들기: 나카야마간 지역의 활성화(<데자활>나카야마간 지역), 탈탄소·에너지의 자산지소, 디지털의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스포츠의 가치 향상
 -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등 안심·안전한 지역 만들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피난 계획 책정, 재해 대응 기반의 구축, 디지털 트윈 등의 최첨단 기술의 개발, 통합형 G 공간 방재·감재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인프라 유지 보수 등
 - 지역 커뮤니티 기능의 유지·강화 :디지털의 활용에 의한 고령자의 지역 커뮤니티, 사회 교육시설의 활용 촉진 등의 지역 커뮤니티를 보완하는 대처 방안 추진
- ⑤ 지역 특색을 살린 분야 횡단적 지원: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교부금을 통한 지원, 스마트시티 관련 시책 지원 지역만들기·마을 만들기(地域づくり・まちづくり): 추진 핵심 동력인 경영 인재를 국내 100개 지역에서 육성 등
- 광섬유 : 지역 협의회 개최에 의한 디지털 실장과 인프라 정비의 매칭 추진·유니버설 서비스 교부금의 창설에 의한 불채산 지역에서의 유지 관리 지원
 - 데이터 센터/해저 케이블 등 : 지방 데이터 센터 거점이나 일본 주회 케이블의 정비, 육양 국의 지방 분산 촉진
 - 5G : 새로운 5G용 주파수의 할당, 기지국 개설의 책무창설, 보조금에 의한 지원 및 세제 조치의 활용, 철탑이나 안테나 등의 인프라 쉐어링의 추진 등
 - Beyond 5G : 통신 인프라의 초고속화, 전력 절약화 및 육해공 포함, 국토 100% 커버 등을 실현하는 기술의 연구 개발을 가속. 2025년 이후 순차적으로, 개발 성과의 사회 실장과 국제 표준화추진

- **(3대 디지털 기반 정비)**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디지털 기반 정비, 디지털 인재육성 및 확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전략 추진

-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디지털 기반 정비

- 2030년 말까지 5G 인구 커버율 99% 달성, 5년간 전국 각지에 지방 데이터 거점센터 5개 정비, 2027년 말까지 광섬유 세대 커버율 99.9% 달성, 2025년까지 해저 케이블(디지털 전원도시 슈퍼 하이웨이) 완공 등을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인프라 정비계획’을 통하여 계획

① 디지털 인프라 정비, ② 마이넘버카드9) 보급 촉진·활용 확대, ③ 데이터 연계기반 구축, ④ ICT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성과 편의성 높은 대중교통 네트워크 정비, ⑤ 에너지 인프라의 디지털화 등

- 디지털 인재의 육성 및 확보

- 2026년 말까지 230만 명의 디지털 추진인재를 육성하고 ‘디지털 인재 지역환류전략 패키지’에 근거하여 인재의 지역환류를 촉진하며, ‘여성 디지털 인재육성 플랜’에 근거한 전략 추진

① 디지털 인재육성 플랫폼 구축, ② 직업훈련의 디지털 분야 중점화, ③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디지털 인재육성, ④ 디지털 인재 지역환류 촉진

-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誰一人取り残されない) 전략 추진

- 2022년 2만 명의 ‘디지털 추진위원’ 선정을 시작으로, 향후 인원을 더욱 확대하여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고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사회 실현

① 디지털 추진위원 확대, ② 디지털 상생 사회 실현, ③ 경제적 상황에 따른 디지털 격차 완화, ④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디자인 체제 확립, 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 추진

- **(6가지 지역비전 제시)** 지방에서 효율적으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을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이미지화하기 쉬운 비전 유형을 제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지원
 - 스마트시티·슈퍼시티: 데이터 연계 기반 등 디지털과 AI, IoT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고도로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만들기·마을만들기를 목표로 추진
 - 디지털 활용(デジ活) 중산간 지역: 중산간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림어업의 '일자리 만들기'를 축으로 풍부한 자연, 매력 있고 다채로운 지역자원·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 산학관 협창(協創: collaborative creation)도시: 지역산업·청년고용 창출, 지역기업 및 지방 공공단체와 제휴한 지방대학의 대응을 유도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
 - SDGs 미래도시: 지역 활성화 전략 추진 시 SDGs 이념을 도입하여 정책 전반 최적화, 지역 과제 해결 가속화 등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
 - 탈탄소 선행지역: 2030년도까지 민간부문의 전력 소비에 따른 CO2 실질 배출량 제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함께 활용하여 탈탄소화에 주력하는 지역 조성을 목표로 추진
 -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Mobility as a Service) 구현지역: 지역 주민의 이동 니즈에 부응하여 복수의 대중교통이나 그 외의 이동 서비스를 조합하여 검색·예약·결제 등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MaaS를 구현하여 이동의 편리성 향상 등을 추구하는 도시조성을 목표로 추진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실현을 위한 6가지 지역비전 사례>

① 스마트시티·슈퍼시티



스마트시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AICT)
-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츠시(福島県会津若松市) -

② 디지털 활용 중산간지역



워케이션이 가능한 가능한 농박시설 사례

③ 산학관 협창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추진
- 고치대학(高知大学) -

④ SDGs 미래도시



스마트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초(北海道上士幌町) -

⑤ 탈탄소 선행지역



태양광발전, 대형축전지 활용 마이크로그리드
-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県静岡市) -

⑥ MaaS 구현지역



MaaS 앱을 이용한 택시 배차
- 군마현 마에바시시(群馬県前橋市) -

□ 시사점

- 일본에서는 지방으로 인구이동이 증가할지,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할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함.
- 코로나19 이후 일본은 도시권을 넘어서는 인구변화의 움직임은 없으나 도시권 내부의 인구이동 변화가 발생
- 특히 업무공간 이용에 대한 변화가 두드러지며 3차 산업 중에서도 사업서비스업이 두드러진 도쿄 도심부의 오피스 공실률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원격근무가 정착 중
- 거주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원격근무 관련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일본인의 생활에 침투한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어 향후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도시권의 공간 가치가 변화하면서 지방 이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여 도심 집중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전략과 맞물려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이 지역 활성화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
 - 코로나19 이전에도 일본은 혁신적인 디지털화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한국과 달리 디지털 전환이 중요 정책 과제화
 - 특히 디지털 전원도시 보조금 지원사업 중 국가 인프라정비계획에는 디지털 기반 구축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
 - 지방창생전략, 슈퍼시티, 스마트시티 전략 등의 국가전략에 디지털 기술을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은 중앙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전환모델
 - 한국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인 일본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용성 역시 상당히 높아 일본과는 차이가 상당
 - 중앙정부가 정책 비전을 제시하되, 지자체가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디지털 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디지털 전환의 단계별 성숙도에 따른 체감형 핵심성과지표 설정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일본 전국이 같은 형태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활용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책 모니터링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과거의 정책과 상이
 - 특히 명확한 평가체계 구축, 시민사회와의 대화 체계 확립,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은 향후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의 추진이 가지는 중요한 시사점

□ 지자체 · 공공 주간(自治体 · 公共 week) 개요

- 주요 내용 : 연 1회 개최되는 지자체·관청·공공기관을 위한 서비스·제품 종합전으로 관련 기업, 기관,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등 참여
- 전시 일정 : '23.6.28~30 (3일간), 도쿄 빅사이트
- 전시회 구성 : 총 6개 전시회로 구성
 - ① 제6회 지방창생 EXPO, ② 제3회 스마트 시티추진 EXPO, ③ 제3회 지자체 DX전, ④ 제3회 지자체용 서비스 EXPO, ⑤ 제2회 지역방재 EXPO, ⑥ 제1회 인프라 유지보수전
- 운영체제
 - (주관) 지자체·공공주간실행위원회(自治体·公共 week)
 - (기획/운영) RX JAPAN.LTD (웹사이트 : www.publicweek.jp)
 - (후원) 일본 총무성, 전국시장회, 전국정촌회

< 행사 포스터 >



□ 제6회 지방창생 EXPO (地方創生 EXPO) 개요

- 전시회명 : 제6회 지방창생 EXPO
- 목적 : 관광·모객 서비스 지원, 지역산업이나 기업 지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성 등을 위한 서비스 등 전국의 지방창생 관련되는 지자체 및 기업이 출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도입·검토의 장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소개 : 지역 PR·관광·인바운드 지원·산업지원 관련 제품 서비스를 주제로 전시회, 상담, 컨퍼런스 등을 운영
- 전시일정 : '23.6.28~30 (3일간), 도쿄 빅사이트
- 운영체제
 - 주관 : 지자체·공공주간실행위원회(自治体·公共 week)
 - 기획·운영 : RX JAPAN
 - 후원 : 일본 총무성(總務省), 전국시장회(全國市長會), 전국정촌회(全國町村會)

< EXPO 참관 >



□ 지방창생 EXPO 운영현황

- (운영체계) 정부가 주관하는 지방시대 엑스포와 달리 일본 최대 전시사인 RX JAPAN Ltd.가 주관하고 중앙과 지방기관들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전시회
- (주요 방문자) 지방창생 EXPO는 지자체의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됨
- (프로그램) 전시회, 컨퍼런스,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시회) PR을 원하는 지자체와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및 단체 등이 전시를 추진하며,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방문(참관)하는 형태
 - (세미나) 지방창생 국가시책, 지자체 사례 등 관련 주제로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담당 공무원 등이 개최하는 세미나 개최
- (홍보방안) 초대권 배부, SNS 운영, 리플렛 사전발행, 홈페이지 운영, 방문 홍보 등을 진행
- (전년도 지자체 공공주간 참여현황) 방문객 3일간 총 14,605명(중복 없음), 컨퍼런스 총 3,937명, 기자단 총 223명, 지자체 442개
- (2023년 지자체 공공주간 예상 참여현황) 방문객 총 18,000명, 참가업체 320개, 제품 수 약 1,000여 개

< EXPO 참관 >



□ 시사점

- 기업 주최 및 지자체 공무원 참석을 통한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활력 강화
- 명확한 타겟팅 및 주제 구성
- 개방적 전시 구성을 통한 고객 접근성 및 참여도 활성화

□ 활용방안

- 전시 큐레이터 배치
 - 전시장 Zone별 큐레이터 배치를 통해 상호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및 적극적 참여 유도 가능
- 주제 선정
 - 현안에 대한 주제 선정 및 주제별 연결성을 통한 Story line 구성
 - 생애주기 등 각 주제를 연결하여 하나의 핵심 주제 도출
- 행사 추진방향 개편
 - 일반적 프로모션 방식의 단방향적 행사 지양
 - 적극적 소통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방향 개편
- business 섹션 도입
 -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품/서비스 홍보를 희망하는 기업 사전 모집 및 전시

□ 주요 정책세미나 세션

일시		세부내용
6월 28일 (수)	10:00 ~ 10:45	G-K1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전략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 “디지털의 힘으로 실현하는 지방창생” (발제자) 이치카와야즈시 (소속) 내각 관방 (직책) 내각심의관 / 디지털 전원도시국가구상실현회의 사무국 차장
	12:30 ~ 13:30	G-1: DX 추진 담당자를 위한 세미나 후쿠오카시의 DX추진에 대해서 “신청주의에서 푸시형 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도전” (발제자) 야스카와코오헤이 (소속)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직책) 총무기획국 DX전략부 DX전략과 DX전략계 DX전략과장
6월 29일 (목)	12:30 ~ 13:30	G-4 : 스마트시티 추진 담당자를 위한 세미나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의 NAVYA ARMA를 활용한 마을 조성에 대해서 (발제자) 카와카미토오루 (소속) 이바라키현 사카이초 동사무소 (직책) 기획부 지방창생과 과장
	13:30	G-4 : 스마트시티 추진 담당자를 위한 세미나 국가전략특구 가가시의 스마트시티 구상 (발제자) 야마우치토모시 (소속) 이시카와현 가가시 (직책) 이시카와현 가가시 최고 디지털 책임자
	15:00 ~ 15:45	G-5 : 지방 창생 대응 사례 웰빙선진지역 도야마현의 성장전략 (발제자) 닛타하치로 (소속) 토야마현 (직책) 지사
6월 30일 (금)	10:00 ~ 10:45	G-6: 지역 관광 만들기 (발제자) 히라야마코오리 (소속) 관광청 (직책) 관광지역진흥과 과장보좌
	12:30 ~ 13:15	G-K2 : 지자체 DX 추진을 위한 정부전략 디지털의 진전 현황 (발제자) 코오노타로우 (소속) 디지털청 (직책) 디지털 장관

가. 사이타마현 지치부시

□ 지치부시 정보

- 2005년 지치부군, 요시다정, 아라카와촌, 오타키촌 등이 통합하여 형성된 지치부시는 면적 577.69km², 인구 약 60,000명으로 사이타마현에서 가장 큰 도시임. 사이타마현 서부에 위치
- 일본에서 코로나 이후 경제부흥이 가장 빨랐던 곳 2위
-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자원으로 구석기~전국시대의 유적, 고분군, 와도(和銅)에 관한 유적, 지치부 오우칸, 지치부 사건, 지치부 후다쇼 순례 및 지치부 요마쓰리 등 유명하고 귀중한 역사·문화 유산이 많음
- 지역사회의 적극적 고민과 주민참여 정책 시행을 통해 지치부시의 노인복지 정책은 일본에서도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꼽힘

□ 주요 정보

-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 고령자들이 자택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간호 보험제도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 독립 헬퍼(도우미) 파견, 자택에 소방서나 경찰서에 알릴 수 있는 긴급 통보기 설치 등이 있음
 - 유상 자원봉사자 제도: 건강한 은퇴자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돕는 제도. 시장을 대신 봐준다거나 하는 일로, 보수는 상점회에서 받음. 경제와 복지, 두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 받음. 후생노동성과 내각부에까지 모범사례로 보고됨

○ 사이타마현 지치부시 노천시장

- 상가가 주체가 된 나이트 버절과 교류 거점 정비 등을 통한 활기찬 재생, 적극적인 노령층 사업운영 및 지역 주민 교류 거점 활성화
- 지치부역 앞에 위치한 미야노카와 상점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도전한다.'는 자세로 약 30년간 나이트 바자를 계속 개최하는 등, 재구매·특전처 만들기에 임함으로써, 빈 점포 제로를 달성
-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의 일상생활의 지원이나 지역 주민의 교류 거점의 정비 등, 고령화 사회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것으로, 지역 공헌을 도모함과 동시에 상가의 활기찬 재생에 연결
- 상가진흥조합 사무국을 두는 동시에 고령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집합소, 관광객의 휴게소, 정보 발신의 장소로 활용
- 관민협동 : (관)환경 정비등 하드 사업에서의 자금 지원 + (민)상점가 주체의 유연한 발상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지역의 니즈를 파악한 대처
- 관련성과(KPI) : 연간 입장 관광객 수 469만명 -> 600만 명으로 증가

< 지치부시 방문 >



나. 사이타마현 요코제마치

□ 요코제마치 정보

- 지치부시 인근 마을로 사이타마현의 서부에 위치한 요코제마치는 면적 49.35km², 인구 약 8,000명으로 도쿄에서 70km 떨어져 있음
- 이시가쿠보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통해 정주 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마을

□ 주요 정보

- 지역 활성화 세미나 개최 ('23)
 - 사업 경영자, 행정 기관 대상으로 요코제의 젊은이와 아이가 활기차게 자라는 환경을 만들고자 『왜 요코제마치는 계속 살고 싶은 거리에서 상위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 아시가쿠보 얼음기둥
 - 산의 경사면에 계곡물을 뿌려 만든 거대한 고드름으로, 높이 약 30m·폭 200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임. 1월 초부터 2월 말 개최되며,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며 지치부 3대 고드름 중 하나로 손꼽힘.

< 요코제마치 방문 >



Ⅲ. 추진효과 및 결과활용

□ 지방시대 엑스포 벤치마킹

- 지역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확대 추진되는 '2023 지방시대엑스포' 성과 극대화

□ 국가균형발전사업 정책 착안사항 도출

- 주요국의 지방소멸, 지방상생 등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부처별 국가균형발전사업 정책 착안사항 도출 및 사업추진계획에 반영
-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 등 최근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 방향 및 지방 디지털화 전략 벤치마킹



キラリと光る「街・お店・人」のこと
NEWS
ボスタウンニュース vol.3

2023 年
(令和 5 年)
夏号

**地域のニュースや情報
を探しています!**
ボスタウンニュース
公式 LINE
ご登録ください
お友達登録は
◀こちらから

令和 5 年 夏祭り開催日決まる

この夏はどの地域も通常開催が予定されています。およそ3年ぶりです。各所とも以前のような賑わいが予想されますが、コロナ第9波の懸念も高まっているため、体調管理には十分ご注意ください。

●川瀬祭り(秩父)
日時 7月19日(水)～20日(木)
場所 秩父市街地、秩父神社周辺

●西秩父商工会 七夕祭り(小鹿野)
日時 8月5日(土)
午後4時～8時
(交通規制: 午後3時～9時)
場所: 小鹿野町市街地

●西秩父商工会 七夕祭り(小鹿野)
日時 8月5日(土)
午後4時～8時
(交通規制: 午後3時～9時)
場所: 小鹿野町市街地

●寄居玉流氷水天宮祭(寄居)
日時 8月5日(土)(雨天中止)
場所 玉流河原、市街地
(玉流河原/寄居駅 徒歩約15分)
ープログラムー
午後8時45分～花火大会
※荒天の場合8/19(土)午後7時30分に順延

●秩父音頭まつり(皆野)
日時 8月14日(月)
午後4時30分～9時30分
場所 皆野町商店街・おまつり広場
ープログラムー
午後8時45分～花火大会
※荒天の場合8/19(土)午後7時30分に順延

●はなぞの ふるさと納涼夏まつり(深谷)
日時 8月14日(月)(雨天中止)
午前11時～午後8時
場所 花園総合運動公園

●船玉祭り(長瀨)
日時 8月15日(火)(小雨決行)
※荒天の場合は延期
場所 長瀨岩屋敷周辺
(長瀨駅 徒歩約5分)
ープログラムー
午後5時00分～万灯船運載
午後6時00分～祭典(水上安全そばつ煮)
午後6時20分～灯籠流し
午後7時15分～花火大会
(午後8時45分終了)



▲〇〇で記念撮影...

令和5年6月29日、韓国内閣府より2名の視察団が来日し、秩父市と横瀬町を訪れた。今回の目的は韓国国内の過疎化を食い止めるため、近隣諸国の成功事例を視察するといったもの。日本では秩父市と横瀬町が選出され、北城市長をはじめ、秩父市職員、横瀬町職員が出迎えた。

まず秩父市が注目されたのは、アニメーションを活用した若い世代の新規観光客の獲得と、地域の伝統行事である「秩父夏祭り」にヒトを得た商店街の活性化策「ナイトバザール(夜市)」だ。

イメをモテル都市として描いたアニメを活用し、ファンが作品の舞台となった土地を巡る「聖地巡礼」をイベントで盛り上げ、新規観光客を獲得。単発ではなく、毎年来訪したくなる仕掛けとしており、この取り組みがスタートして10年経った今もファンとの交流は続いている。

また、ナイトバザールは、国道を約400m歩行者天国にして、夜に開催される「みやのかわ商店街」のイベントだ。三十年以上続いているが、毎回は「回」として、新しい催しにチャレンジし、現在まで八百以上の企画を実施。この取り組みは、韓国内閣府の一人は、「秩父市も横瀬町も、最初の予算が少ないことに驚いた。身近なことをコツコツ積み重ね、日本人特有の精密な地域活性化を実現し、二百五十回を超えるが、毎回と交流に多少なりとも寄与できた花火をぜひご覧ください。」

<기사 원문 번역> 2023년 6월 29일 한국 내각부로부터 14명의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해 지치부시와 요코세초를 방문했다. 이번 목적은 국내 과소화를 막기 위해 인근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는 것. 일본에서는 지치부 시와 요코세 정이 선출되어 기타보리 시장, 토미타 촌장을 비롯하여 각 직원이 각각 영접하였다.

지치부시가 주목받은 것은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젊은 세대의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전통 행사인 지치부야제에서 힌트를 얻은 상가 활성화 방안 나이트바자르(야시장)다.

구체적으로는 지치부를 시범도시로 그린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이벤트를 개최. 팬들이 작품의 무대가 된 땅을 실제로 찾는 성지순례를 뜨겁게 달구며 신규 관광객을 확보했다. 단발이 아니라 매년 내방하고 싶어지는 장치도 하고 있어 이 대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팬들과의 교류는 계속되고 있다.

나이트바자르는 국도를 보행자 천국으로 만들어 개최되는 미야노카와 상가 행사다. 30년 이상 지속되어 250회가 넘지만, 매년 새로운 행사에 도전해 현재까지 800개 이상의 기획을 실시. 질리지 않는 궁리를 거듭하다.

한편, 요코세초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마을 만들기의 실천이나 실증 시험등을 할 수 있는 챌린지의 필드「요코라보」.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싶은 기업이나 자신의 아이디어로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고 싶은 개인, 새로운 도전에 임하고 싶은 단체 등이 응모해, 채용된 것을 요코세초가 서포트한다. 2021년도 총무성 '고향 만들기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시도다.

한국 내각부의 한 사람은 지치부 시나 요코세 정 모두 최초 예산이 적은 것에 놀랐다. 그 안에서 일본인 특유의 정밀한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번 시찰은 비슷한 지역 과제를 가진 양자가 교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